

기획특집_ 플라이강원 취항 2주년, 비상을 위한 힘찬 날개를 펴다!



양양군민 진료 협력병원 안내



업무협약내용

- 건강정보, 건강상담 서비스
- 만성질환 예방 및 중증질환 치료 상담
- 진료비 우대
- 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 검진20%, 정밀검진 10% 김
- 비급여 감면(병원 및 항목별 감면)

등록 안내

문의 : 교류협력실 교류협력팀 (☎02-958-2997~8) 동서건강증진센터 (☎02)958-8711~3)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업무협약내용

- 선택진료비 20% 감면
- 비급여(일부) 10% {MRI, sono(초음파)}
- 종합검진비 10%
- 입원시 병실 우선 배정 등 필요시 별도 협약

등록 아내

문의 : 원무부 (☎031-910-7456) 총무부 (☎031-910-7515)



한양대학교병원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업무협약내용

- 진료절차에 따른 편의제공 및 사전예약
- 지역주민대상 건강검진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의뢰 시 감면 혜택
- 관광시설 이용 등 편의제공
- 지역 특산물 직거래 알선

등록 안내

문의 : 대표전화 (☎02-2290-8114) 건강검진예약 (☎02-2290-9550~2)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플라이강원 취항 2주년 비상을 위한 힘찬 날개를 펴다!
- 8 마을가는 길_ 현남면 원포리
- 12 **맛있는 양양여행**_ 상소문까지 올렸던 양양의 엄동설한 진상품 도루묵의 숨겨진 이야기

의기양양

- 14 의정소식_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뒤바뀐 이유를 알아본다
- 18 YANGYANG NEWS
- 21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현남면 인구리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_ 2021 양양군 UCC 영상 공모전 입상작

COVER STORY



크리스마스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F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마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19호

|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플라이강원이 취항 2주년을 맞았다. 2019 년 첫 취항을 시작하자마자 불어닥친 코로 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걱정과 우려 속 에서도 꿋꿋이 버텨왔다.

코로나 종식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항 공사들의 운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반가 운 소식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지방공항도 속속 국제선 재개가 시작 되고 있다.

플라이강원도 다시 비상을 위한 힘찬 날갯 짓을 준비 중이다.





두 돌 맞은 플라이강원

지난 11월 22일 양양국제공항에선 플라이강원 2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2년 전 플라이강원의 양양-제주 노선 첫 취항식이 열렸던 같은 날, 같은 시각이다.

플라이강원의 첫 출발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신생 항공사엔 더욱 가혹했다. 2주년 기념식을 지켜보는 플라이강 원 직원들은 물론 플라이강원 출범에 힘을 보탰던 양양군민 의 감회는 더욱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로 강원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함. 어떻게 버텼을까

잘 나가던 항공사들도 줄줄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신생 항공사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 해외 관광객을 강원도에 유치하는 인바운드 항공사라는 사업모델로 시작한만큼 국제선 중단은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되풀이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에 직원들은 함께 고통 분담을 해나갔다. 직원 절반이 무급휴직 과 유급휴업을 병행하면서 고정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으 도민의 큰 기대와 희망으로 출범했다. 2019년 11월 22일 양 양~제주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서울 김포, 대구 노선이 신설됐다.

국제선은 12월 26일 대만 타이베이를 첫 취항으로 이듬해 필리핀 클락 하늘길이 열렸다. 이후 대만 가오슝, 태국 방콕, 마카오, 일본 나리타, 중국, 홍콩 노선으로 확대해 양양국제공항을 동북부 허브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현재는 제주, 대구 2개의 국내 노선만 운항 중이다

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지난해엔 항공기 3대 가운데 2 대를 반납할 정도였다.

최근 주원석 대표는 유상증자 참여로 150억 원 납입 완료를 마치고 아직은 경영개선보다는 생존에 초점을 맞춰진 상태다.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들이 고통 분담을 견디고 버틸 수있는 건 항공과 관광상품을 융합한 TCC(Tourism Convergence Carrier) 항공사로 국내 최초의 인바운드 항공사라는점에 자부심이 컸다.



위기 속에서 얻은 성과와 도전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14 개 공항 중 양양국제공항이 유일하게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양양국제공항이 활기를 찾는데 플라이강원의 역할이 컸다.

한때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플라이강원 3개 항공사가 양양에서 서울 김포, 부산 김해, 제주, 광주, 대구 5개 노선을 오가면서 주차장이 붐비기 시작했다, 급기야 임시주차장이 두군데나 만들어졌다. 플라이강원은 양양~제주 노선이 주 14회, 양양~대구 주 2회, 총 주 16회 운항으로 양양국제공항에서 가장 많은 비행 편수를 운항하고 있다. 지난 5월 플라이강원의 누적 탑승객은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반납했던항공기 2대 중 8개월 만에 2호기를 재도입해 현재는 두 대가운항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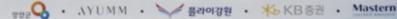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플라이강원은 나름 자구책을 모 색했다. 항공과 관광이 융합된 국내 최초 TCC항공사로서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항공권과 서핑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선 노선밖에 운항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새로운 시도였고 TCC항공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인바운드 항공사라는 사업모델의 본래 취지를 실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얻은 성과였다. 양양 -대구와 양양-서울 김포 노선은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국제선 중단으로 국내선을 확장하면서 강원도민 항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된 것도 의미 있는 점이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관광시설 개발사업 추진

2021. 10. 7.(목) 11:00





더 높은 비상을 위한 힘찬 날갯짓 준비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부 쩍 늘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청정자연에 둘러싸인 강 원도의 무궁무진한 매력에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도 크다.

플라이강원은 다른 LCC와 차별화되게끔 중형기를 도입해 시장을 좀 더 넓혀가기로 했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강원도 의 관광 매력은 코로나I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 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인천국제공항 을 시작으로 지방공항도 국제선 재개를 시작하면서 기지개 를 켜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내년 초 예정된 양양국제공항 의 국제선 운항을 앞두고 국제선 TF(Task force 특별전담) 팀을 신설해 다가올 취항 준비에 나섰다. 나라별 현지 사정 과 방역방침들을 파악하고 신규노선의 경우 현지 지점 허 가 관련 등 발 빠른 준비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가장 고무적인 건 양양 일대 대규모 국제관광시 설 조성사업이다. 지난 10월 7일 플라이강원은 양양군, ㈜ 아윰, KB증권㈜, 마스턴투자운용㈜와 함께 '외래관광객 유 치를 위한 국제관광시설 개발' MOU를 체결했다. 총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 국제적인 관광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및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를 견디고 버텨낸 플라이강 원,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양양국제공항이 강원도를 넘어 동북부 허브 공항으로 우뚝 서게 될 그 날까지, 플라 이강원은 더 높은 비상을 위해 날갯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글·사진: 편집부)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현남면 원포리

해양심층수 절임배추 사업으로 얻은 명성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열정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내일을 꿈꾸는 마을 2021년의 끝에 이르렀다. 동시에 새해의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으로 이 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확장된다. 강이 끝나는 지점에 넓은 바다가 펼쳐지는 것처럼. 현남면 원포리는 수많은 시작과 끝 사이를 부지런히 이어 달리 며 변화와 성장을 도모해 온 마을이다. 과거를 쉬이 지우지 않 고, 다가오는 미래를 양팔 벌려 환영하며 고유의 정체성을 구축 해 나가는 원포리를 만나본다.



원포리는 동해고속도로 남양양 IC에서 지경리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마을로, 오대산자락에서 발원한 화상천이 바다로나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멀 원(遠)과 개 포(浦) 자를 써서 '바다에서 먼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이름과는 다르게 강과 바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곳이다. 주민 대부분이 하천을 끼고 있는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으며, 여름에는 원포해수욕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있고, 해양심층수 취수지역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으니 말이다.

원포리 지역은 바닷물의 유입과 유출이 적어 다른 해역과 섞이지 않아 어느 지역보다 청정하고 저온 안정성이 뛰어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워터비스는 원포리에 해양심층수 공장을 설립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32m 해저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로 생수, 소금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서 마을과 동반 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민을 우선으로 장애인 고용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해양심층수라는 천혜의 자원을 매개로 기업과 마을이 함께 협력해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워터비스는 원포리를 비롯한 인근 마을 가정에서 해양심 층수 원수나 생수를 필요로 한다면 무상 제공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마을 주민들 에게 판매하고 있다. 원포리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절임배 추 사업으로 10여 년째 소득 창출을 꾀하고 있다. 해양심층 수 절임배추는 김치로 담갔을 때 식감이 아삭하고,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전국 곳곳에서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처음에는 마을 공동 사업이었으나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마을 법인과 함께 개인 사업자의 영업도 활발하다. 김 장철인 요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문받은 절임배추 물량을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한다. 주민들이 직접 키운 배추와 해양심층수가 만나 원포리만의 특색 있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누군가의 삶의 끝을 위로하는 고귀한 소리

예부터 오대산자락에서 발원한 화상천이 흐르는 긴 골을 수 동골이라고 불렀다. 원포리는 수동골 상여소리가 전승되고 있는 마을 중 하나이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된 수동골 상여소리는 전통장례식으로 치러지던 특유의 절차와 소리를 민요로 담아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가(輓歌)로, 점차 사라져가는 옛 장례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현재 원포리에서는 4명의 주민이 수동골 상여소리 보존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김용우 노인회장(76세)은 소리의 기량은 물론 민속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후진 양성을 위한 열정이 수동골 상여소리 기능 전승에 큰 역할을한 것을 인정받아 2015년 기능보유자로 선정되었다.

"기능보유자 자격을 얻는 데 3년을 재수했어요. 평소에는 소리가 잘 나오다가도 심사위원들 앞에 서면 가슴이 떨리고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러 온게 아니라 무형문화재의 보존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니 마음편히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죠."



우리 마을에 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있다는 사실은 원 포리 주민들에게도 큰 자부심이다. 마을 안에 상여를 보관하 는 곳집도 자리하고 있어 수동골 상여소리 전승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사명감은 당연하다. 원포리는 전통 소리의 맥을 지켜나갈 전승자 발굴과 양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가는 중이다.



'시작'이 있기에 '다음'이 있는 것

원포리는 수많은 시작을 경험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6년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하면서 마을 경관 가꾸기와 소득 향상에 힘을 쏟았고, 해양 심층수의 부가가치를 높이 평가해 절임배추 사업을 시작했다. 그밖에도 크고 작은 시작들이 있었다.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결실은 원포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이후 현재까지 큰 이슈는 없지만, 월 I회 마을 대청소와 농약병 · 폐비닐 등 분리수거 작업, 마을 꽃밭 가꾸기, 쓰레기 종량제 실천 등 67가구 126명(II월 24일 기 준)의 주민이 쾌적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도를 멈 추지 않고 있다. 최선호 이장(64세)은 앞으로 원포리의 발전 과 활성화를 위해 여러 계획들을 구상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 마을의 주민소득 사업은 해수욕장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작년에 해수욕장 운영에서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다행히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앞으로 이웃 마을인 지경리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이에 대비해 우리 마을도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마을 자원을 발굴해 소득 사업으로 연계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시작이 반이다.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원포리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이미 반쯤 열려있는 것이다. 그 문을 활짝 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원포리가 되길 희망한다.

⟨글·사진: 편집부⟩



상소문까지 올렸던 양양의 엄동설한 진상품 도루묵의 숨겨진 이야기

딱 요맘때부터 내년 2월 정월 보름 전까지 양양의 겨울 동안에 먹지 않으면 싱겁게 섭섭할 것 같은 제철생선이 있다. 심퉁이와 도루묵이다. 맛보기의 섭섭함을 떠나 억울했던 처지의 사연으로도 널이 알려진 두 가지 생선을 양양 사람들은 '도치'라는 말보다 심퉁이, 싱퉁이, 싱애라고 불렀고, 도루묵은 '돌매기'라고 불렀다. 예전부터 진짜 이름을 두고 이렇게 양양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어투로 이름 짓고 겨울 내내 요긴하고 맛있게 먹어왔다. 보통 그 지역의 특정한 산물(産物)에 붙이는 이름은 빨리 부르고, 편리한데로 부르고, 생긴 모양대로 이름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양의 심퉁이, 돌메기 또한 이러한 이유로 붙인 이름일 것인데, 한 해의 끝자락에 들어서 그 추억의 이름이 더 맛있는 때이다.

선조의 '말짱 도루묵'이라니

동해안 생선 중에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루묵이다. 본래 이름은 '미거지'라고 하지만 생긴 모양대로 양양에서는 '물곰' 이라는 부르며 시큼시큼한 김치 국물에 시원하게 끓여 즐겨 먹었던 곰치를 비롯해, 장치, 아귀, 양미리, 심퉁이도한때는 뱃전에 오르기 전에 발길질에 버림을 받았던 사연의 생선들이다.

하지만 도루묵은 이들 생선들보다 더 억울한 사연이 지금까지 꼬리표처럼 붙어 있다. 선조임금과의 연루설 때문이다. 선조임금이 임진왜란으로 궁(宮)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을 때, '묵'이라는 생선을 먹게 되었다.

본래 '묵'이라는 말은 '묵사발'의 비유처럼 어떤 일이나 물 건이 형편없게 되었거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을 뜻 할 때 쓰던 옛말인데, 선조가 그 '묵'맛이 어찌나 좋았던 지 귀하고 값진 물고기라는 뜻으로 '은어(銀魚)'라는 이름 을 다시 붙였다.

전쟁이 끝나고 환궁(還宮)하여 피난길에 맛있게 먹었던 '은어(銀魚)'를 다시 먹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그때 맛이나질 않는다며 요즘말로 '다시 묵이라고 해라'는 뜻으로 '도로 묵'이라 했다고 하는 도루묵의 사연이다.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던 일이 허사가 되기 만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데 사실 선조는 도루묵을 먹지 않았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궁궐을 버리고 피난을 떠난 임금은 모두 다섯 명이다. 선조는 도루묵을 진상품으로까지 바쳤던 양양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이 아니라 함흥과 의주로 갈까 고민하다 결국 의주로 피난길을 떠났기 때문이다.

상소문에 기록된 양양 도루묵

고려 이후 도루묵이 잡히는 동해안으로 피난을 왔던 조 선의 임금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 조가 도루묵을 먹었던 것처럼 맛이 없다고 '도로 묵'이라 고 하였다고 하였을까. 이미 도루묵은 조선왕조실록에 동 해안 지역의 제철 진상품으로 바치던 특산물이었다.



특히 영동지역에서는 고성 앞 바다에서 잡은 도루묵을 진상품으로 가장 많이 바쳤다. 양양에서도 같은 시기에 도루묵을 진상품으로 바쳤는데, 어느 해인가 올해는 고 성보다 도루묵이 적게 잡혀 물량을 맞출 수 없으니 수량 을 감축해달라는 상소문을 조정(朝廷)에 올렸던 기록이 있다.

임금이 먹을 조선팔도의 산해진미를 올리는데 그 품목 중에 도루묵이 있었다고 하면, 선조 또한 그 맛을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 선조는 무슨 생선이었는지도 몰랐고, 맛도 없다고 하였고, 거기에 '도루 묵'이라고까지 하였으니전혀 앞뒤가 맞지는 않는 도루묵과의 연관설이다. 이는 강릉 출신이며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기록을 보더라도 선조와 도루묵은 전혀 연관이 없다.

조선시대 사람이었던 허균은 전(前) 왕조 때의 어느 임금이 맛있다고 '은어'라고 했다가 다시 맛없다고 '환목어(還目魚)'라고 했다고 하였다. 전 왕조(前朝)는 선조시대의 왕조가 아니라 바로 고려 왕조를 말하는 것인데, 이를 조선의 왕조로 잘못 이해한 후대의 오류가 400여 년이 지나도록 도루묵에 대한 오해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도 겨울이면 기다려지는 양양의 '돌메기'가 양양의 밥 상에서는 '말짱 도루묵'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지금 이다.

글·사진: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9일간 운영 군정질문,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3개 안건 심의 · 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11월 22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정례회에 서는 군정질문,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총2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게된다.

2021년도 제2차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 김의성 의장은 개 회사를 통해 "그간 코로나 위기상황에도 함께 견뎌주고 협조 해주신 군민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위드 코 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행정 수칙 준수와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방자 치 분권시대에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 군민을 위해, 군민 의 입장에서 더 강화된 소통과 의정활동을 이어나기는 양양 군의회가 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고제철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을 위해서임을 강조하며,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 갈등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간 투명한 소통을 통해 군민의 입장에서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29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철)에서는 이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 례안' 외 3건과, 김택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자원봉사 활동 조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더한 의원발의 총 6건의 조례와 양양군수가 제출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조례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제철)에서는 12월 1일부터 8 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편성인지, 지역 곳곳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기본 복 지 향상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등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되지 않고 효율적인 편성이 이뤄졌는지 심의하게 된다.

군정질문 실시





11월 23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지난 1년간의 군정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의원들은 군민의 입 장을 대변한 38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 소하고자 하였으며,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군정에 대한 종합 적인 점검과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이종석의원은 민자유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숙박시설 및 개발 계획이 논의 ·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개 발호재를 활용한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된 일자리 개발을 위 한 우리군의 노력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의 주 차장들을 근처 숙박시설에서 무단 사용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그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호소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김우섭의원은 계속된 축제와 지역행사의 축소 · 중단을 얘기 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 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더불 어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운행 횟수가 지속적으로 감축 되어 자차 운행이 어려운 고령층 주민들의 통행 어려움을 호 소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귀선의원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시장 형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건의하였으며, 군민안전 보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더 세심한 혜택과 지원 으로 군민들의 일상생활 속 사고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박봉균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농어촌민박 · 펜션들의 예약 취소 등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을 걱정하며, 그 규모와 그로 인해 업체들이 받은 영향에 대 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택철의원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추진중이거나 미 진한 각종 대규모 사업들의 현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들었으며, 모종 · 과일 · 김장채소 등 주민들의 체감온도가 높은 농산물 들의 판로 확보를 위한 농산물판매장 개설에 대해 고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뒤바뀐 이유를 알아본다

오색령의 최초이름을 소솔령(所率嶺)이라 불렀다.

생육신의 한사람이었던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 선생이 쓴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서두에는 이런 글이 있다. "한 줄기가 남쪽으로 200여 리를 뻗어 가다가 산 모양이 우뚝 솟고 험준함이 대략 금강산과 같은 것이 설 악산(雪岳山)이다. 그 남쪽에 소솔령(所奉嶺)이 있다."라 했고, 조선 성종 16년(1485) 윤4월 15일에 "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奉嶺)을 올라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嶺)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현(麟路縣)에서 묵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1589년에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의 『팔곡집(八谷集)』의 한계산(寒溪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양양에서 소솔령(所奉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계사(寒溪寺: 장수대 인근의절)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라고 적었다. 따라서 위를 종합할 때 오색령의 효시(嚆矢)는 소솔령임을 알 수 있다.

오색령으로 호칭한 역사적 시원(始原)은 언제인가?

조선 선조 29년(1596) 2월에 비변사((備邊司), 조선 시대, 軍國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가 "적병이 깊숙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파(彌水城)·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은 모두 영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 그리고 조선말기 지리학자인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고본(稿本)인 동여도에 오색령을 고대로(古大路)라 하였고, 그 외 지리지(地理誌)와 고지도(古地圖) 및 한국근현대 잡지자료 개벽(開闢) 등에 한결같이 오색령으로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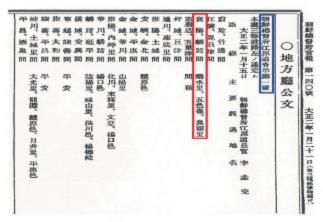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바꿔놓았다.

조선총독부 강원도장관 고시 제1호 1913년(大正 2年 1月 15日)에 의하면 강원도의 3등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했는데 요약하면 울진~죽변 간, 강릉~견소진 간, 양양~인제 간(藥水里, 五色嶺, 魚頭里 經由)···라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는 1915년(大正4年) 측도(測圖)되고, 1918년(大正7年)에 제판(製版), 1918년 10월 25일 인쇄(印刷)하여 1918년 10월 30일 발행(發行)한 조선 5만분의 1 지형도 양양(杆城 8號) 축척지도(縮尺地圖)에 '한계령(寒溪嶺)'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 후부터 오색령 명칭은 지도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한계령이 등장하였는데, 1930년(昭和 5年 4月)에 발행한 한국근 대지지자료의 인제군 관내도에는 설악산과 그 아래 영로로 한계령·단목령·조침령 순으로 표기하였고, 양양군 관내도 영로는 조침령 단 한 곳만 표기되었을 뿐이다.

우리가 주목(注目)하여야 할 것은 조선총독부 강원도장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양양~인제간도로를 3등 도로로 고시할 때 경유지의 분수령 명칭을 오색령(五色嶺)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저들이 제작한 지도상에 한계령으로 변경 표기한 것을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淸算)하지 못하고 한계령 명칭이 고착화(固着化)되었다.







일제강점기 50,000분의 지형도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한계령 명칭을 사용한 배경은 무엇인가?

정부수립 이후 1959년도에 한국 국무원에서 전국의 지명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인제군 북면에서 제출한 지명 조사 서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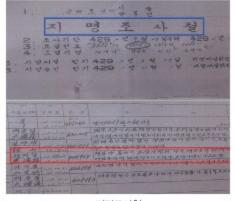
강원도 인제군 지명조사 서식 요약

지도상 기	재 경위도(經緯度	좌표(座標)	지명유래
한계령 寒溪嶺	1/24-1/1-1/1-28-(1	5,40 475164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나즌영으로서 한계지역에 있다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이영이 라고도 함

인제군 북면 지명 조사서는 당시 지도상에 한계령 지명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계령에 대한 자료를 보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계령 지명유래도 가감 없이 "영동과 통하는 오색령의 낮은 영(嶺)으로써 한계지역에 있다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령이라고 함." 이라고 보고했다.

당시의 지명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지도상에 있어야 할 지명이 일제 탄압에 의해 삭제된 지명이라면 마땅히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양양군 지명조사철에는 옛 오색령 지명이 누락 되었다. 반면 국무원의 지명 조사서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명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지도상 지명의 위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 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 후 국무원은 1961년 4월 22일 국무원 고시 제16호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 이외의 표준지명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사용한다."라 고시하였지만, 일제에 의해 오색령 명칭이 삭제당하고 부당하게 만들어진 한계령 (寒溪嶺) 지명이 함께 고시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명조사철

오색령 지명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여암 신경준((旅庵 申景濬) 1712~1781)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산경표(山經表)는 우리나라의 산줄기와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지리서이다. 이 산경표에 나타난 백두대간 영(嶺) 48개중 설악 다음에 오색령·연수령·조침령·구룡령으로 이어지는데 한계령이란 지명은 찾을 수 없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 할 때 반드시 오색령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양양문화재단, 양양연어 특별판매행사 조기 완판 성료

양양문화재단과 양양군수협에서 관내 어가 유지와 어업소득 기여를 위해 진행한 '양양 연어 특별판매행시'가 11월 16일, 조기 완판 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 연속 미개최된 양양 연어축제를 대신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 은 지역 어민들을 돕기 위해 진행한 이번 행 사는 정치망 어선이 직접 어획한 연어를 산 지 경매 후 손질, 냉동, 택배를 지원하여 판 매했다.

연어는 1,000여마리로 11월 말일까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양연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조기 완판의 결실을 거뒀다. 이는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연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었으며, 올해는 전년도와는 다르게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한 만큼, 전국적으로 양양연어의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는 의견이다.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와 한국수력 원자력주식회사(사장 정재훈)가 11월 18일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양양 재경학사관 건 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가 계획 하고 있는 '양양 재경학사관' 건립에 한국수 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가 20억을 기탁 하기로 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장학기금 기탁조건은 양양양수발전소가 위치한 양양군 서면 및 인 제군 기린면 거주 지역민 자녀들의 수혜적 조 치가 우선되도록 재경학사관 운영계획을 장 학회측이 수립하는 것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립한 장학기금의 구체적 지급방법과 시기 는 재경학사관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 되면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 하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 펙! 유튜브 영상 속 양양 명소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2'의 '강릉양양 늴리리아'편에 소개된 양양의 힙(hio)한 관광 명소는 어디일까? 지난 11월 10월, 한국관광 공사가 선보인 유튜브 홍보영상 '강릉양양 늴리리야'는 민요 '늴리리야'를 재해석한 힙합 음악의 콜라보 영상으로 구성돼있다.

1분 44초 분량으로 가수 제이비(JAY B)가 특유의 맑고 청량한 음색으로 민요 '늴리리아'를 흥겹고 리듬감 있는 멜로디로 풀어냈다. 한국 관광공사는 '서피비치 위에 자유를 느껴, 내 기분같이 밝은 태양 아래서'라는 노래 가사에 맞게 양양의 서피비치를 추천하고 있다.

서피비치는 '바다를 즐기는 이국적인 프라이 빗 비치'라 불리며, 연간 50만명이 넘는 관광 객이 방문하고, 각종 SNS상에 매일 1000건이 넘는 인증샷이 올라오는 양양의 랜드마크다.

또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0 한국 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영상 속에는 양양 하조대의 스케이드 보드 파크 '리버티(REVERTY)' 에서 음악과함께 스케이트보드로 스릴감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제9기 회장 김광섭, 철탑산업훈장 수상 영예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전 회 장이 농업·농촌 활성화와 국가 산업 발전 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업인의 날 을 맞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2021,11,11,) 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참석 및 수상 인원을 제한하여 훈장은 11월 18일, 군수실 에서 전수하였다.

김광섭전 회장은 2003년부터 (사)한국쌀전 업농양양군연합회 활동을 시작하여 2008~2009년까지 양양군연합회장, 2010~2013년엔 강원도연합회장, 2016~2019년까지 중앙연합회장까지역임 하며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농업·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농축산식품부의 쌀 관세화 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쌀관세율 513%, TRQ운영 자율권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2015년 임의쌀자조금 위원장직을 역임하며 약3천5백만원의 임의쌀자조금을 거출하였다. 또 2018~2019년 농업계의 큰 화두인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내 농산업 발전에 앞장서왔다.



양양군소상공인연합회, 2021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개최

양양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동술)는 11월 23일 양양군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소상 공인 및 기관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2021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 했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 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5일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도 소상공인 권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장경렬 부회장과 설인석 이사에게 양 양군수 표칭이 수여되었다.

양양군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2월 창립 하여 초대회장 김동술 회장이 현재까지 활발 히 활동하고 있다.





양양군 작은 학교에 알록달록 희망을 입혀주는 키다리 아저씨

양양의 한 페인트 업체 대표가 양양군 관내 작은 학교에 알록달록 예쁜 도색으로 희망 을 선물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청 홈페이지 '칭찬합 시다' 게시판에는 '학교로 돌이온 산타, 김재 식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양양소재 노루 표페인트 ㈜우리도건 김재식 대표(44, 사진) 의 선행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의 글 이 올라왔다.

현성초등학교 전영선 교장은 김재식 대표가 전교생이 13명인 현성초등학교를 예쁘게 색을 입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기 쁨을 누리고 있으며, 입학생과 전입생이 늘 어나 학교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 을 담아 장학금 300만원까지 기탁 받았다고 전했다.

김재식 대표는 2013년 양양 회룡초등학교 색 입히기를 시작으로 관내 작은 학교를 찾 아 도색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대표가 2013년부터 이번 현성초등학교까 지 새롭게 무지개 및 희망을 입힌 관내 학교 는 무려 16곳에 달한다.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양양군청 직원 특강

양양군이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을 초 청하여 11월 8일 직원 대상 특강시간을 가 졌다. 월례조회를 맞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특강에서 조 이사장은 '나눔의 정석이 라는 주제로 국세청 공무원으로 평생을 국가 에 헌신하며 살아온 경험과 퇴직 후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와 함께 공직자로서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직원들 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조 이사장은 국세청이 개청되던 1966년, 9 급으로 출발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 36 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한국세무사회 회 장, 국세공무원교육원 명예교수 등으로 활동 하며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은탑산업훈장,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세무법인 석성의 회 장이기도 한 조 이사장은 1984년 무학자인 선친이 남긴 유산 5천만원을 기반으로 2001 년 (재)석성장학회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 가장들 과 다문화 · 탈북자 가정의 자녀 등 3천400 여명의 초 · 중 · 고 · 대학생들에게 26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해 2011년 설립한 '(사)석성1만사랑회'는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관과 공동작업장을 지어주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5월에는 양양군 서면에 소재한 복지법인 정다운마을(대표이사 함영길)에 '석성 나눔의 집 6호점'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양양군 강현면 추교춘 어르신,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추교춘(사진, 78세) 어르신의 따뜻한 나눔이 큰 울림을 주고 있 다. 추교춘 어르신은 11월 4일, 본인보다 더 어려운 가구의 난방유 지원에 써달라며 기 초생활수급자로 매월 받는 생계급여 60만 원을 모아 양양군 복지정책과에 전달했다.

강현면 둔전리에서 나고 자란 추교춘 어르 신은 해방 전인 1944년생으로 올해 78세 다. 19살 되던 해 속초로 가서 40년간 지내 다가 고향에 돌아온 지 올해로 10여년이 되 었다.

평소 작은 밭을 알뜰히 가꾸어서 채소 등을 수확하여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나눠준다는 어르신은 지난해에도 낙산노인복지센터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큰돈이 생길 일이 없지만 동전을 모으고, 생 계급여를 아낀 돈으로 이처럼 나눔을 실천 하고 있는 것이다.





국화분재연구회, 국화와 함께 하는 가을낭만!

양양군 국화분재연구회(회장 이상철)는 11 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양양군농업기술 센터에서 '제1회 국화분재 작품 전시회'를 개 최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시회는 그동안 코 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지친 군민들의 마 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생활에 활력을 드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대국을 비롯하여 석 부작, 목부작, 직간작, 모양국 등 국화 250여 점과 서예 24점으로, 회원들이 봄부터 정성 을 다해 익히고 가꿔온 결과물들이다.

양양군 국화분재연구회는 지난해 창립하여 현재 3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국화작품 전시 및 보급을 통해 국화를 양양군의 생활원예로 활성화시키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현남면 인구리



1940년



2021년

나는 문득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누군가 이사오길 기다리며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 둔 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

깔끔하고 단정해도 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하늘과 별이 잘 보이는 한 채의 빈집

어느 날
만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음,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이 속삭이며 미소지어 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 이해인〉

이달의 책이야기

사라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기중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1. 11월



완치 없는 삶에 건네는 어느 정신과 의사의 위로 "아름다운 감정을 자주 느끼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한 책."

치매 환자를 돌보는 정신과 의사 장기중의 첫 번째 에세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완치 없는 질병을 다루는 저자는 질병 과 함께 사회적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현실에 안타까움 을 느끼고,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의 세계를 세상과 연결하고 싶어 글을 쓰기 시작한다.

저자는 치매 환자의 이해받지 못하는 세계를 들여다보며 그 의미를 밝히는 한편, 자신을 둘러싼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진 솔하게 털어놓으며 공감을 자아낸다. 환자의 자살, 고독사의 무게, 아버지를 꼭 닮은 고모의 죽음, 완치 없는 환자를 돌보 는 일상, 가족의 암 투병 등 저자가 털어놓은 이야기에는 외 롭고 고단하지만 인간적인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책속한구절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이 역설적으로 누군가의 진심과 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때가 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고통이 있다고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통 속에서도 삶은 이어진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고통 안에도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숨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 「내가 없는 가족사진」에서 -

이달의 추천 신간도서

메종드율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임보연 지음 | 한즈미디어 | 2021, 11월



메종드율이 소개하는 맛있고 건강한 집밥 이야기!

구하기 쉬운 재료로 간편하고 근사하게 완성하는 메종드율의 인기 집밥 레시피 76가지. 인스타그램의 인기 요리 연구가이자 유명 식재료 브랜드 메종 드율의 대표인 저자가 가장 아끼는 집밥 레시피를 엄선하여 소개한 책이다. 어떤 상차림에도 어울리는 만능 단품 요리부터 건강하고 맛있는 샐러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든든한 메인 반찬, 한 끼식사로 손색없는 솥밥과 다양한 한 그릇 요리, 인기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손님 초대 요리와 브런치 메뉴까지 누구나 실패 없이 만드는 메종드율의 인기쿠킹 클래스 메뉴를 한 권으로 만나볼 수 있다.

빨간 아이, 봇

윤해연 (지은이), 이로우 (그림) | 허블 | 2021, 11월



"도대체 이건 뭘까?

우리 회로가 망가지지만 않았다면 쉽게 알아냈을 텐데."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 인간이 사라져 버린 것과 연관이 있을까?" - P. 18.

아이들에게 새로운 우주를 열어주는 '허블어린이' 시리즈, 독창적인 방식으로 어린이의 세계를 깊이 있고 섬세하게 그려온 윤해연 작가의 첫 SF 장편 동 화이다. 윤해연 작가는 〈빨간 아이, 봇〉에서 모순적 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인류가 전멸 한 후 정보가 지워진 채로 버려진 로봇들에 대해 다 류다.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033-673-7050

https://yangyang.scinema.org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취대홍얼앤에프	1명	식품생산관리자 (경력5년이상)	09:00~18:00 (주5일)	월250만원 이상
현산소규모요양시설	1명	요양보호사 (승합차 운전가능자)	08:20~17:50 (주5일)	월192만원
(주)세인	2명	금속구조물 제조 및 설치원용접기능사 필수)	08:00~18:00 (주6일)	월250만원
대운건설(주)	1명	토목 품질관리자 (중급기술자)	08:00~17:00 (주5일)	연5,000만원
진망산업	4명	수산물 가공,생산직 (홍게뚜껑 생산)	08:00~17:00 (주6일)	월215만원
망망수산	2명	수산물 가공.생산직 (홍게가공 생산)	08:00~17:00 (주5일)	시급9,160원
(주)스피어테크	2명	화장품 제조 및 기계조작원	09:00~18:00 (주5일)	연2,200만원
티스테이션 양양점	1명	자동차정비사	09:00~18:00 (주6일)	월210만원 이상
효드림 재가노인복지센터	3명	재가요양보호사	13:00~16:00 (주5일)	시급 11,000원
디모테오꿈마을	1명	요양보호사	교대근무	월182만원 이상
소규모요양원	1명	운전 및 시설관리원	09:00~18:00 (주5일)	월192만원 이상
양양6편한세상 아파트	1명	아파트 시설기사	격일근무	월265만원
주식회사 다인	2명	기계제작 및 현장설치원	09:00~18:00 (주5일)	연2,500만원 이상
㈜메디엔비티크	2명	제조단순종사원	09:00~18:00 (주5일)	월182만원 이상
주식회사 디오션 (양양비치콘도)	1명	프로트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240만원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 확대 운영 진료일정 변경

모양기간: 2021, 11월부터

ㅁ 진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5개소

ㅁ 진료의사: 권성준 보건소장

- 외과 전문의(세부전문 : 위장관 외과)

ㅁ 진료내용

- 위장관 관련 진료 및 처방

- 전문의료 상담

- 방문보건대상자 진료 및 상담 등

세부진료일정

♦ 당초

- 보 건 소 : 매주 화요일(10:00~12:00)

보건지소: 매주 목요일(14:00~16:00) 면별 순회

♦변경

- 보 건 소: 매주 화요일(10:00~12:00), (14:00~16:00)

보건지소: 매주 수요일(10:00~12:00), 목요일(14:00~16:00)면별 순차적 운영

※ 양양군민에 한함 / 진료환경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문의사항: 양양군보건소 진료지원 (☎033-670-2548)

2022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안내

□ 근무기간: 2022, 1, 3, ~ 1, 28.(기간중 20일, 주5일 근무)
 ※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모집인원: 25명

□ 접수기간: 2021, 12, 13, ~ 12, 17,

ㅁ 추 첨: 2021, 12, 21,(화) 16:00 (희망자 선착순 3명 참관)

※ 2021년 하계부터 전산추첨으로 변경됨.

ㅁ 선발자 발표 :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2021, 12, 21,(화) 18:00 이후

□ 선발자 서류 제출: 2021, 12, 23, ~ 12, 24,

※ 예비 합격자: 12, 27,(월) 하루 접수

□ 문의사항: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033-670-2453)

정보꾸러미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보충2차_최종)

□ 교육기간: 2021, 11, 10.(수) ~ 12, 10.(금)

ㅁ 교육대상 : 양양군 소속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1~4년차, 5년차 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 미이수 대원

□ 교육시간: 1시간 시청각교육 *24시간 접속가능

□ 문의전화: ☎1566-8448

접속방법: 포털사이트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www.cmes.or,kr)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 1~4년차, 5년차이상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됩니다.

"교육기간 중에만 접속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강원도형 민관협력 일단시켜 배달앱 가맹점 모집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가맹정을 모집합니다!!

대상업종: 외식업종(식품·정육 등 소매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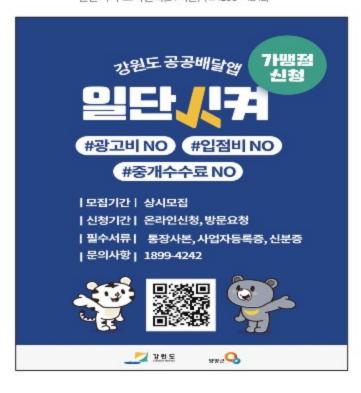
※ 사업장 소재지가 양양군인 업체(ex, 본사가 서울에 있는 직영점은 불가)

모집방법: 온라인, 사무실 방문 및 현지 출장 접수※ 강원도 경제진흥원 및 기간제근로자 2명

ㅁ 모집대상: 사업장 소재지 內 양양군민 외식업소

□ 문의사항: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57, 670-1759)

일단시켜 고객센터(24시간) (21899-4242)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신 · 편입생 모집

□ 모집기간: 2021, 11, 26,(금) ~ 2022, 1, 5,(수)

D 모집학과: 24개 학과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일본학과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사회복지학과

 자연과학대학: 농학과, 생활과학부, 컴퓨터과학과, 통계 · 데이터 과학과, 보건환경학과, 간호학과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문화교양학과, 생활채육지도과

ㅁ 지원자격

신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편입: 대학(교),전문대학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1학년 또는 2학년 이상 수료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

 신입: 입학지원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편입: 입학지원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방문 접수: 강원지역대학, 강릉시학습관, 원주시학습관

ㅁ 접수

- 인터넷 접수: www,knou,ac,kr → 2022학년도 1학기 지원서 작성

□ 상담 : ☎1577-285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원지역대학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은 코로나19로인한 사회문제 와 위기를 나눔을 통해 함께 극복하고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인 성금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적 약자 돌 봄지원, 교육 · 자립 지원 등 새로운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사용됩니다.

모금기간: 2021, 12, 1 ~ 2022, 1, 31(62일 간)

ㅁ 목표금액: 1억 2천 1백만원

모금방법: 양양군청 복지정책과(☎033-670-2293) / 읍 · 면 사무소
 모금함, 전화 ARS(☎060-700-0577, 1통화 3천원)







주택연금과 함께 걱정은 덜고 안심은 더하세요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어내세요!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신탁등기)하고, 공사는 이를 담보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으 로부터 주택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장점]

-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자동승계
- · 주택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 있어도 가입가능
- · 가입 및 승계 시 고객 부담 비용 절감

[가입요건]

- · 나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 주택 보유 :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 대상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 복합용도주택, 농/어업인 주택은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 1.0%), 연보증료: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 1.0%)

연금수령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령 : 부부의 연령중 적은 나이 기준 주택가격 : 시가를 반영(아래 순서에 따라)

- ①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 ②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 ③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 ④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격 (비용부담시 우선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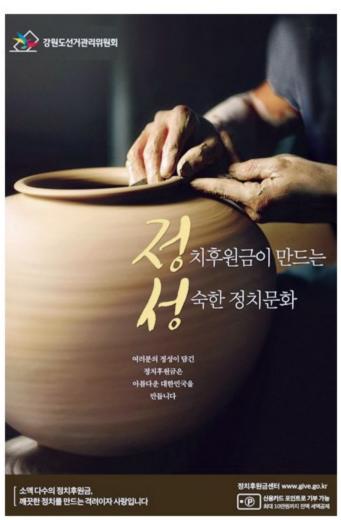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종신지급방식(정액), 일반주택, '21. 2월 기준)

연령 주택가격	2억원	3억원	5억원
60세	42	63	106
70세	61	92	153
80세	95	143	239

- * 부부 중 연소자 기준(60세 미만은 홈페이지 참고)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동부지사 (☎033-660-4713, 4719)







0. "대설"이 무엇인가요?

세상을 하얗게 만드는 눈이 아주 많이 오는 현상

0. 대설주의보는 언제 발표할까요?





11 11 11

A.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이상 예상될 때



A.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이상 예상될 때

※기상특보 날씨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대설!! 이렇게 대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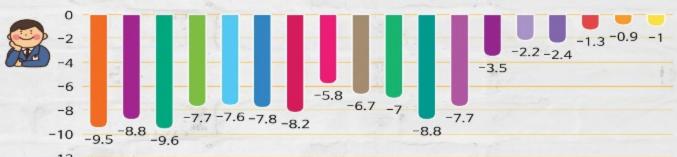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용 월동 고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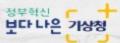


약자는 이출을 삼가고 낙상사고에 유의해 주세요

O. 강원도 시군별 12월 평균 최저기온(2010~2020년)은 얼마나 될까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정선 평창 태백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인터넷: 기상청날씨누리(www.weather.go.kr) 휴대폰: ①기상청 모바일 홈페이지(m.kma.go.kr) ②날씨알리미 앱

저 화: #



윈지방기상청



취향의 시대 양양에서 맛있는 서핑 트립



양양에 가면 있는 먹거리



WHY? YANGYANG!



Delicious in Yangyang



양양 바다 속으로 MV







2021 양양군 UCC 역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블로그

http://blog. naver. com/likeyyang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 뉴튜브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